

공감과 웃음, 따뜻한 위로까지... 초감성 미니 드라마 <초인가족 2017>

2월 20일(월)
밤 11시 10분 첫 방송



<초인가족 2017>(극본: 진영, 연출: 최문석)이 2월 20일(월) 밤 11시 10분에 첫 방송된다. <초인가족 2017>은 이 시대를 살아 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초인'이라는 주제 아래, 평범한 회사원, 주부, 학생들의 이야기를 웃음과 감동, 풍자를 통해 그린 30분짜리 초감성 미니 드라마다.

<애인 있어요>, <발리에서 생긴 일> 등을 통해 정통 드라마의 대가로 평가받고 있는 최문석 PD가 연출을 맡아, 현 시대에서 중간으로 살아남기도 힘든 우리네 이야기를 유쾌하면서도 페이스소스 짙게 그려낸다.

드라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가장이자 백도, 라인도 없어 늘 승진에서 물 먹고, 오르지 않는 박봉에 고군분투하는 주류회사의 비주류 만년과장 나천일의 집과 직장, 이웃들의 이야기로 진행된다.

<편지>, <육룡이 나르샤> 등 다수의 작품에서 강렬한 연기로 존재감을 뽐낸 배우 박혁권이 나천일 역을 맡아, 가정과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네 가장의 모습을 때로는 코믹하게, 때로는 눈물겹게 보여준다. 나천일의 아내 맹라연 역은 박선영이 맡았다. 맹라연은 남편의 박봉으로 전세대출을 갚고, 딸의 학원비를 내며 적금까지 넣어야 하는 대한민국 평균 주부의 고민을 현실감 있게 묘사하며 공감을 이끌어 낸다.

나천일, 맹라연 부부의 외동딸 나익희 역은 김지민이 맡아, 심각한 중2병 말기 천방지축 사춘기 10대의 모습을 대변한다.

나천일의 직장 동료로 엄효섭, 박희분, 김기리, 이호원(인피니트 호야)가 출연하고 맹라연의 친정 엄마 역으로 김혜옥이 출연해, 각자의 사연과 캐릭터로 드라마 속 또 다른 공감 포인트로 작용한다. 한정환 EP는 "<초인가족 2017>은 유쾌한 듯 하지만 결국은 짝한 슬픔과 공감을 담은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리얼한 소재를 바탕으로 빵 터지는 웃음과 짝한 감성을 동시에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대를 아우르며 공감대를 형성할 초감성 미니 드라마 <초인가족>은 매주 월요일 밤 11시 10분에 30분물 두 편이 연달아 방송된다.

<런닝맨> 팬미팅 아시안 투어, 첫 개최지 타이페이 행사 성황리 종료

중소기업 제품 판촉전 동시 개최,
한국 우수 제품 알려



SBS가 주관하는 '2017 <런닝맨> 팬미팅 아시아 투어'(이하 '<런닝맨> 팬미팅')가 지난 2월 10일(금) 대만 타이페이 첫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며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런닝맨> 팬미팅'은 아시아 전역에서 붐을 일으킨 <런닝맨>의 팬 서비스 차원에서 기획된 것으로, 지금까지 행사 기획사에서 주최한 팬미팅은 있었으나, SBS가 공식적으로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런닝맨> 멤버인 김종국, 이광수, 하하, 송지효, 지식진과 스페셜 게스트 개리가 참석해 노래, 토크, 게임 등 성실히 준비한 알찬 내용으로 대만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행사장인 타이페이 난강전시센터를 가득 메운 8천여 팬들은 출연자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연호하며 뜨거운 성원을 보냈다. <런닝맨>이 아시아 최고의 한류 콘텐츠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SBS는 '<런닝맨> 팬미팅' 행사와 연계해 난강전시센터에서 대한민국 중소기업 제품 판촉전도 함께 개최했다. 판촉전은 SBS 글로벌제작사업팀이 중소기업청 산하 대중소기업 협력재단과 손잡고 중소기업들의 대만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전시된 40여 종의 제품들은 팬미팅을 보러온 대만 관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글로벌제작사업팀 심상구 매니저는 "SBS의 우수 콘텐츠와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이 함께 어울려 해외시장에서 좋은 상승효과를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시된 제품들은 팬미팅이 종료된 후에도 대만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한 달간 판매되는 등 지속적인 유통 확대 및 활성화를 꾀한다.

한편 '<런닝맨> 팬미팅'은 2월과 3월에 걸쳐 마카오, 방콕,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홍콩에서 개최된다.

<두시탈출 컬투쇼> - 10년 연속 프로그램 청취율 1위! 파워FM - 8라운드 연속 채널 청취율 1위!



2017년 첫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가 대한민국 라디오 프로그램 최강자 자리를 지켰다.

2월 1일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2017년 MRS(수도권 라디오 청취자 대상 청취율) 1라운드 조사 결과에 따르면,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는 평일 11.8%, 주말 12.9%의 청취율을 기록하며 월~일 통합 챔피언 자리를 수성했다. 특히 2위를 차지한 프로그램들과 평일 5.5%p, 주말 5.4%p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2006년 5월 1일 첫 방송을 시작한 <두시탈출 컬투쇼>는 10년 연속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파워FM <김창렬의 올드스쿨>의 상승세도 눈길을 끈다. <김창렬의 올드스쿨>은 이번 조사에서 청취율 4.6%를 기록하며 8위에 올랐다. 이는 지난 라운드(2016년 4라운드) 19위

에서 무려 11계단을 뛰어오른 것이다. DJ 김창렬은 지난해, 10년간 DJ를 맡아 'VOICE of SBS'에 선정될 만큼 청취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SBS 파워FM도 라디오 전체 채널 중 청취율 1위 자리를 지켰다. 파워FM은 청취율 21.6%, 13-59세 청취율 24%를 기록해, 8라운드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라디오 채널임을 입증했다.

파워FM은 프로그램별 청취율 TOP 20 안에 모두 5개의 프로그램을 포진시키고 있어, SBS 파워FM의 독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1월 3일부터 16일까지 조사한 라디오 청취율 2017년 1라운드 조사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13~69세 라디오 청취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 ±1.8%p다.

SBS의 VR 콘텐츠, 앱으로 실감나게 즐긴다



SBS가 최근 완성한 고품질 VR(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콘텐츠를 2월 24일(금) SBS 앱을 통해 무료로 공개하며 VR 비즈니스의 발판을 마련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VR 콘텐츠는 그룹 아스트로 멤버들이 출연하는 VR 드라마 <심쿵하우스>, <쁘띠아로하 1호점>, <아스트로 미생>과 그룹 마마무와 아스트로의 <인기가요 360도 VR> (이상 UHD추진팀 배성우 선임매니저 연출)다.

<심쿵하우스>는 숙소 안 아이돌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쁘띠아로하 1호점>은 단 한 명의 팬을 향한 아스트로 멤버들의 애정 고백을 담았다. <아스트로 미생>은 멤버들이 데뷔를 준비하며 겪었던 실제 에피소드를 재구성한 이야기다. VR 드라마는 아스트로 멤버들이 마치 연인처럼 가까이 다가가 사용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살렸다. 특히 <쁘띠아로하 1호점>은 마치 사용자가 아스트로 멤버들에게 고백을 받는 듯한 몰입감을 구현했다. 한편 <인기가요 360도 VR> 마마무의 무대는 360도 화면 구성 속에서 3D 입체 촬영과 실감 오디오 녹음을 통해 마치 바로 눈앞에서 공연을 보는 듯한 생동감을 연출했다.

VR은 HMD 기기가 있어야 좀 더 실감나게 즐길 수 있으나, SBS는 기기 없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했다. SBS 공식 앱을 통해 2월 24일(금)부터 무료로 공개된다.

뉴미디어개발팀,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추적 시스템 운영



변형된 영상의 예(액자형)

뉴미디어개발팀은 지난 2015년 개발한 불법 스트리밍 추적 시스템을 약 1년간의 실험 운영 및 테스트를 거쳐 지난 2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불법 스트리밍 추적 시스템'이란 온라인 상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SBS 콘텐츠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으로, 해당 사이트 뿐 아니라

각 사이트에 연결된 뿌리 영상에 대한 위치까지 추적이 가능하다.

기존의 수동 검색과 필터링 기술로는 외국어(예: 태국어, 아랍어 등)로 올린 콘텐츠, 영상을 변형(예: 액자형 변형)하여 업로드하는 불법 콘텐츠는 차단할 수 없었다. 이 시스템은 이런 것까지 감지가 가능해 사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

해당 시스템은 개발 직후인 2015년 11월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약 4만 8천 개의 영상(약 7억 5천만 뷰에 해당)을 적발해, 수집 데이터를 삭제 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불법 유통 단속팀(콘텐츠허브 국내사업팀)에 전달했다. 이는 해당 손실액을 최소로 잡더라도 약 37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뉴미디어개발팀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단속의 즉각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단속 업무를 체계화하고 수집 데이터를 통계로 낼 수 있도록 해당 시스템을 OPS(Online Publishing System)에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문의: 뉴미디어개발팀 박재현(4838), 유성(4842), 전재영(4839))

연간 총 불법 뷰수 (추정)	744,836,402	불법 스트리밍 추적 시스템에 의한 수집 기준
유료 뷰당 판매가(원)	1,000	
최대 손실액(원)	744,836,402,000	전체 불법 뷰수 유료 시청 가정
무료 배포시 뷰당 최소 수입(원)	50	개별 SMR 클립 당 수입(광고) : 15원 내외 회차별 SMR 클립 생성 개수 : 3개 이상
최소 손실액(원)	37,241,820,100	전체 불법 뷰수 무료 시청 가정

수집 데이터 및 손실액 추정

미국판 <신의 선물-14일>,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전역에서 방송 확정



<신의 선물 - 14일>(이하 <신의 선물>)이 한국 드라마 최초로 리메이크돼 미국 전역에서 방송된다.

미국 메이저 지상파방송사 ABC는 <신의 선물>을 'Somewhere Between'이라는 제목의 10부작 시리즈로 리메이크해 오는 6월 미국 전역에서 방송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ABC가 파일럿 제작을 통한 시장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10부작 시리즈 전체를 편성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신의 선물> 작품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200~300개의 소재를 선정해 대본 작업에 들어가고, 그 중 30여 개의 작품을 파일럿으로 제작하며, 최종적으로 2~5개의 작품만이 시리즈로 만들어진다.

<신의 선물> 편성을 결정한 ABC 고위 관계자는 “<신의 선물>은 원작 화면에 더빙만 하여 미국 내 방송을 해도 될 만큼 스토리 전개가 구체적이며 박진감이 넘친다”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SBS 콘텐츠의 미국 배급을 담당하고 있는 SBS 인터내셔널 김문진 뉴미디어사업팀장은 “<신의 선물>이 한국 드라마가 그토록 영유했던 ‘글로벌화’의 첫 시작을 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신의 선물> 미국 리메이크 진출을 추진한 SBS 글로벌제작사업팀 김인순 매니저는 “이번 리메이크 성사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 포맷의 상품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미국판 <신의 선물>은 듀에인 클라크 감독에 조셉 브로이도와 이반 페칸이 연출을 담당하며, ‘캡틴 아메리카’, ‘썸머랜드’ 등 다수의 흥행 드라마와 영화를 집필한 스테판 톨킨이 극본을 맡는다.

여자 주인공으로는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 및 ‘데자뷰’에 출연했던 폴라 패튼이 캐스팅됐고, 남자 주인공은 현재 캐스팅 중이며, 오는 3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첫 촬영을 시작하여 6월 ABC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그것이 궁금하다

동영상포털프로젝트팀의 첫 성과물



2월 1일 OASYS.tv 서비스가 개시됐다. OASYS란 Open Archive SYstem(개방형 아카이브 시스템)의 약자로, SBS 영상아카이브를 외부 사업자에게 오픈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동영상포털프로젝트팀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다.

Pooq이나 클립 서비스 등과 다른 점은?

Pooq은 다시보기, 클립은 하이라이트 보기 서비스들이다. 소비플랫폼을 TV에서 온라인으로 옮긴 ‘방송 보기’의 모습이다. 또 방송사가 제공하는 대로 ‘보기만’ 해야 한다. OASYS.tv는 다양한 주제별 영상을 각 사업자가 큐레이션할 수 있다. 주제별 영상을 손쉽게 찾아서 편집해 사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사업팀에서 방송 영상에 메타 데이터를 입혀 온라인 DB화했다. 장면 메타 데이터가 대표적인 메타 DB다. 1회 차 방송을 20개 구간으로 자르고, 구간마다 설명을 넣고 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외부 사업자가 OASYS.tv에서 계정을 신청하면 심사 과정을 거쳐 자격을 준다. 자체적인 서비스 플랫폼(앱/웹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한한다. 계정을 발급받은 이들을 ‘파트너’라고 부르는데, 약관 동의 절차를 거친 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SBS 영상을 편집해서 각자의 PC웹/모바일웹/모바일앱에 올릴 수 있다. 온라인 편집, 온라인 사용이 원칙이고, 소비이용자가 활용하는 곳이 아닌 사업자용 B2B서비스다. 현재 약 100여 개 사업자가 신청해서 60여 개 사업자가 파트너가 됐고, 계속해서 미디어 스타트업 중심으로 홍보와 모집을 하고 있다.

어떤 서비스들이 가능한가?

우리의 방송 영상에는 패션, 여행, 뷰티, 인테리어, 음식, 교육 등 다양한 테마가 담겨져 있다. 이런 테마를 활용한 다양한 주제별 서비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ODI’라는 2월 말에 오픈하는 맛집 지도 서비스는 이용자가 올리는 맛집별 영상서비스다. 여기에 SBS에 나온 맛집 장면이 1분정도 편집돼서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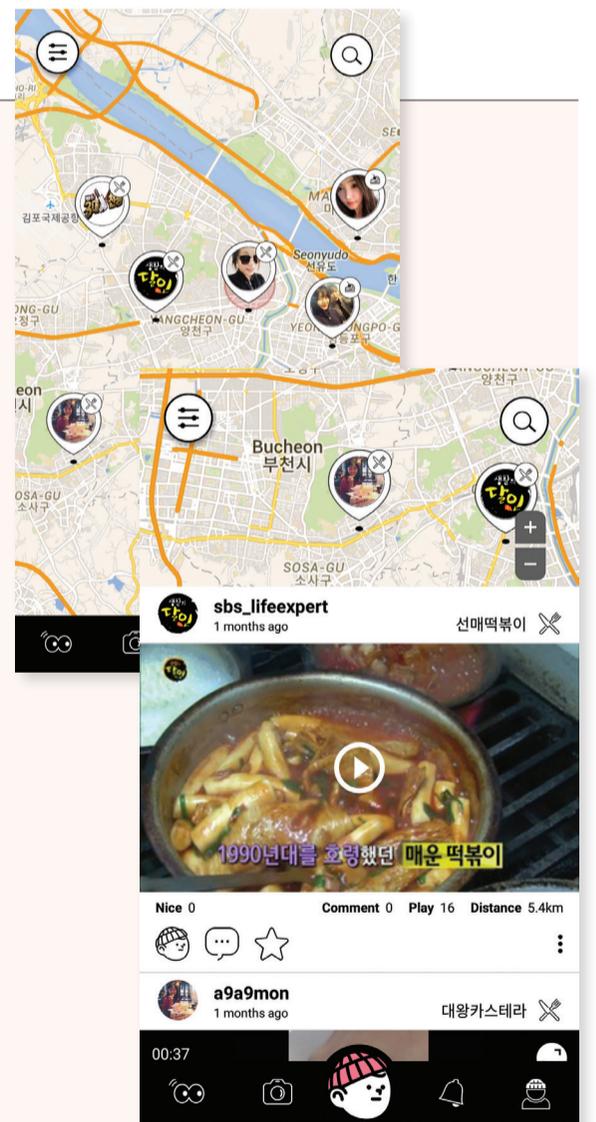
온라인에 유통되는 TV클립의 80%가 어제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이다. 제작진이 만든 좋은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오래 유통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사업의 목표는?

OASYS.tv 사업은 동영상포털(KUB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동영상포털 프로젝트는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매출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그 중간 과정인 OASYS.tv를 통해서 많은 파트너들이 다양한 온라인 검색 DB를 만들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는 이후 직영 플랫폼의 경쟁력 있는 DB가 될 것이다. 또 이용자 및 데이터를 확보해 온라인 광고 솔루션 마련에 기초가 될 것이다.

앞으로 계획은?

OASYS.tv의 오픈 베타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상반기까지는 확산에 목표를 두기 때문이다. 하반기부터는 유료화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계획이다. 파트너별 영상 재생 수에 따라 비용을 받는 방식이다. 타 방송사와의 제휴도 진행 중이다. SBS 콘텐츠뿐만 아니라



맛집지도 서비스 ODI에 활용되는 OASYS.tv

라 더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파트너가 많이 생긴다. 처음엔 관망만 하던 방송사들이 OASYS.tv 오픈 후 실제 모습이 보이자 재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또 상반기내에 프로그램 영상에 얼굴 인식을 통한 출연진 등장구간 추출, 영상 속 물건이나 배경을 찾아내는 ‘오브젝트 인식’, 배경음악을 알아내는 ‘음악인식’, 자막정보와 대사를 텍스트화 하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터뷰
이 사람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어머니 한 풀어 드렸나

-교양2CP 소속 이윤민 선임PD, 편성기획팀 김지은 PD



1월 25일 대법원이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 패터슨에게 20년의 형을 확정했을 때, SBS에 감회가 남다른 두 사람이 있었다. 1998년과 99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을 다루며 공론화시킨 이윤민 선임PD와 2009년 다시 이 사건을 다루며 미국으로 도망간 패터슨을 찾아내 검찰에 송환을 압박한 김지은 PD 두 사람이다.

패터슨의 형이 확정되던 날의 감회는?

이: '사필귀정'이란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왔다. '사필귀정'은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힘써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라는...

김: 확정될 때까지 마음을 놓지 못했다. 연락을 받고 사무실에서 혼자 두 손을 번쩍 들었다. "이제서야!" 그리고, 그래도 "드디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태원 살인사건을 다루게 된 계기는?

이: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 제보에서부터였다. 자기 아들은 살인현장의 목격자였을 뿐인데 살인범으로 기소됐다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을 아이টে으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당시 공동연출이었던 박종성 PD가 사전 취재를 위해 피해자 고 조중필 씨의 집에 찾아가다. 어머니는 아들의 방에서 찾아낸 머리카락을 작은 상자에 모아놓고 이 머리카락으로 아들을 복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그 애달픈 모정 때문에 당시 최경 작가를 비롯한 우리 팀 모두가 이 사건에 매달렸다.

김: 2009년에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되자 10년 만에 다시 사회적 관심이 일었다. 신진주 작가가 아이টে을 제안했고, 과거 <그알> 방송을 찾아보니, 최소한 둘 중 한 명은 살인범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 10년이 넘도록 가해자

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이미 이윤민 선배가 에드워드 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패터슨은 미국으로 출국해버린 상황까지 너무나 잘 취재하여 방송했기에, 패터슨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취재하면서 누가 범인인지 확신이 들었는지?

이: 많은 사람들이 누가 범인인지를 물어 보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둘 중에 누가 범인인지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 사회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중요 용의자가 출국하게 내버려 두고, 송환하는 데도 16년이나 걸렸나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느낀 바가 많았을 것 같다.

김: 당시에 패터슨의 소재만큼 궁금했던 건,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12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였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건이 너무 많아서 모든 사건을 챙기기는 힘들다고 했다. 다들 6개월에서 길어야 1년 정도 있으면서, 쌓여있는 미제사건 중 하나로 '앞사람이 그랬듯이' 지나갔던 게 아닌가 싶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0년이 넘도록 아무도 그런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해결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이 씁쓸했다. 이 사건은 어머니의 의지로 끝을 보게 됐지만, 아마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친 사건들이 많을 것이다.

사법당국이 못 찾은 패터슨을 <그알>이 찾았다.

김: 취재를 시작하고 법무부 관계자에게 유력 범죄 용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용의

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사법공조를 요청할 수는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마음먹고 찾아도 못 찾는 거라고? 우리가 한번 찾아봐?" 하는 오기가 생겼다. <그알>과 오래 함께해온 미국 현지 코디를 통해 사설탐정을 고용했다. 돈이 좀 들었을 뿐 패터슨의 소재 파악은 열흘이 채 안 걸렸다. 기대하지 않았던 패터슨의 인터뷰까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코디의 공이 컸다. 예전에 선배들이 잘 만들어놓은 방송에, 뛰어난 작가와 해외 코디네이터의 능력에 물어간 방송이었다.

다시 <그알>로 돌아간다면?

이: 사실 작년에 <그알> 장기취재팀이 생긴다며, 나에게 다시 할 의향을 물어왔다. 참고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없던 일이 됐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ㅎㅎ

김: 현재의 <그알> 수준에 나는 자격 미달이다. <그알>을 하는 동안 내 능력은 항상 부족했고, 매번 방송이 끝나면 부끄러움이 남았다. 그래도 좋은 인연으로 남은 사례자분들이 있어서 뿌듯하다. 취재과정을 통해서, 또 좋은 선배들과 작가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게 됐다.

끝으로 한마디

이: 많은 분들이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모든 결론이 나고 다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해결사도, 심판자도 아니다. 시사다큐의 역할은 시청자들을 안전한 거실의 TV에서 냉혹한 현실로 이끌고 가서 그곳에 남겨놓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태원 살인사건'이 그런 역할을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이다.

어린이를 위한 요리 정보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어린이를 위한 요리 정보 교육 프로그램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제작: 라움채널, 프로듀서: 성기훈)이 2월 27일(월) 첫 방송된다.

쿡방과 먹방이 넘쳐나는 시대에 어린이를 위한 요리 프로그램은 없다.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은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맛'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진행자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나는 현지 제철 음식과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직접 체험하고 맛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음식과 함께 식재료에 대한 정보와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는 덤으로 공부할 수 있다. TV를 통한 다양한 음식 체험으로 오감 발달은 물론 올바른 식습관을 기를 수 있는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은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30분 간 방송된다.



안식년에 들어가는 박수택 선임기자



박수택 선임기자가 정년을 1년 앞두고 3월부터 안식년에 들어간다.

박수택 기자는 1991년 3월 SBS에 입사해 보도국 사회부, 국제부 등을 거쳤다. 도쿄 특파원 당시에는 '추한 한국인'의 저자를 끈질기게 추적 보도해 반향을 일으켰고, 1996년 '음주 시리즈' 취재 당시에는 직접 폭탄주를 마신 뒤 위내시경을 통해 혈관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음주의 위험성을 고발했다. 2008년에는 SBS 최초의 환경전문 기자로서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던 대운하 사업을 파헤쳤다.

기자로서도 유능했지만, 박수택 기자는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했다. 부도덕과 부패에 타협 없이 온몸으로 맞섰다. 복지부에 출입하던 시절, 공보관실에서 기자실에 제공하던 점심 접대 관행을 끊어버린 것도 그였다. 경조사비조차 사양했다. 그래서 불이익도 받았고 외롭기도 했으나 후배와 동료들의 존경을 받았다. 박수택 기자는 다음 달 자비로 중국 하얼빈으로 건너가 대학에서 동아시아의 사회, 정치, 문화에 대해 연구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 본 사보는 SBS 신뢰체로 만들었습니다.